



철도시설공단 사옥

# 철도공단, 중소기업체에 예산 조기 투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 민생·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 집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 건설업체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예산 중 조기 집행 비율을 당초 59.9%에서 1.6%포인트 올려, 올해 예산 5조6천390억원의 61.5%인 3조4천680억원을 집행한다.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비 1조450억원 중 61.7%인 6천44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 지급 자재(조달청 구매)는 '선금 선고지 제도'를 활용해 자재 생산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 4천516억원을 선지급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자체 시행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마치는 즉시 시행한다.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 중 433건 25억원(1인당 6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적으로 국가귀속 민자역사 내 46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4억4천만원(1개 업체당 1천만원)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공단이 보유한 수련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공단·도로공사 해외 민관 협력사업 업무협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3월 31일 한국도로공사와 해외 철도·도로 복합사업 공동 발굴, 대형 민관협력사업(PPP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철도와 도로 부문 사업실적과 경험, 연구개발 등 역량을 활용해 해외 PPP 사업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지원과 수주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첫 협력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4조원 규모의 킹하마드 코즈웨이 철도·도로 복합 PPP 사업이다. 공단은 정부의 해외 인프라 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을 받아 다음 달부터 국내 전문 컨설팅 기업들과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김상균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철도와 도로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인프라 시장 수주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⑦



회의를 주재하는 김상균 이사장